발행등록 11-1371029-000167-06
ISSN 2233-8632

오늘의 도서관 vol. 339 2026 01+02

2026 01+02

오늘의 도서관

vol. 339



세대와 세대

2026년 《오늘의 도서관》은 삶의 이야기를 잇고 넓히며
우리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확장(Expansion)'의 여정을 담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서로 다른 시간과 경험을 마주하며
이해와 공존의 폭을 넓혀가는 '세대와 세대'의 만남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39 2026 01+02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표지 이야기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세대가 모여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저마다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세상을 완성해 나갈 때,
우리 삶의 가능성은 더 넓고 깊게
확장됩니다.

일러스트. 제이비(JB)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6년 2월 2일
발간등록번호 12-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민동용, 이은경, 조선영, 최윤경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82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CONTENTS

2026 01+02

vol. **339**

첫 번째 장.
주제에 다가가다

04 **주제 바라보기**
'세대와 세대' 깊이 읽기
세대, 조롱과 다툼을 넘어
이해와 상생으로

08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풀어보는
세대 간 소통 이야기

12 **지혜를 만나는 두 권의 책**
오직 궁금함으로 열리는 세계
두 권의 책으로 바라보는 세대 공감

16 **주제 돌아보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에 대하여





두 번째 장.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지면을 통해 본 식(食)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상
1934년의 식탁 풍경

20 **사서 큐레이션**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사서가 추천하는 행복 탐구 도서 12권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다시 펼쳐진 소녀의 무지개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풍경과 삶이 스며든 휴식처 같은 공간
추억이 깃든 경춘국도에서 만난 도서관

32 **세계의 도서관**
2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책들을 만나다
프랑스 국회도서관

세 번째 장.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그림 같은 눈, 그리운 눈, 그리는 눈
어른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네 권의 동화

40 **문장 너머의 세계**
0과 1 사이에서 피어나는 온기
SF 소설가 전윤호

44 **타인의 삶 읽기**
빌 게이츠,
시대와 일상을 바꾼 혁신가
《소스 코드: 더 비기닝》

48 **장면이 된 문장들**
실직과 광기의 서사
《액스》를 품은 <어쩔수가 없다>



네 번째 장.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5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세대와 세대’ 깊이 읽기

세대, 조롱과 다툼을 넘어 이해와 상생으로

세대는 빛난다. “그들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황금 세대지.” 세대는 좌절한다. “우리는 최악의 빚더미를 떠안았어.” 세대는 다툰다. “우리가 버릇없다고? 당신들이 고리타분한 거야.” 그렇지만 세대는 손을 잡고 세상을 이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세대와 세대’를 키워드로, 반복되는 갈등의 역사를 짚어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세대 간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반복되는 세대의 정의와 갈등의 역사

영화 <미드나잇 파리>에서 21세기를 혐오하는 주인공은 1920년대의 파리 살롱으로 간다. 그곳에는 주인공이 ‘황금 세대’라며 찬미하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파블로 피카소, 스콧 피츠제럴드 등의 예술가들이 어울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살롱의 주인인 비평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 ‘형편없는 젊은이들’이라고 푸념한다. 너무나 상반된 평가. 하지만 이들에게 ‘세대’가 중요한 화두였음은 분명하다.

동시대인 1928년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이 ‘세대 문제’를 발표하면서 사회의 여러 현상을 ‘세대’라는 틀로 분석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그로부터 서구의 역사는 베이비부머, X 세대, 밀레니얼, Z 세대 등으로 구분되었고, 한국에서도 6·25 전쟁, 586, 신세대, MZ 등으로 세대를 나누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항상 툭탁대는 진통이 있었다.

전쟁과 빈곤을 통과한 세대에게는 생존 자체가 중요하다. 가족이나 지역끼리 똘똘 뭉쳐 다른 생각이나 문화를 배척한다. 이어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는 세대는 전 세대의 폐쇄성에 질려 자유로운 문화를 지고의 가치라 여긴다. 두 세대는 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격렬히 다투며,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파열을 만들어낸다. 다음 세대는 이에 염증을 느끼며 개인주의로 흐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일본이 겪어온 이 같은 과정을 우리 역시 빠르고 농축된 형태로 경험했다.

모호해진 경계와 미디어 속 '가짜 전쟁'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변화의 계단은 모호해진다. 새로운 세대는 인터넷, 모바일, 해외여행 등을 통해 종래와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얻는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를 세대화하려는 경향은 매우 약하다.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미디어는 이들을 둘러싼 'MZ론'을 줄기차게 생산하는데, 밀레니얼과 Z 세대는 거의 30년을 뭉뚱그린 덩어리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가치관, 과감한 도전 의식, 미래 지향의 에너지로 이전 세대를 비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대 의식도 약하고 인구수와 경제적 잠재력도 떨어진 현재의 청년 세대는 다르다. 선명한 주장을 담은 조직적 움직임은 찾기 어렵고, '요즘 MZ'에 대한 조롱에 '영포티' 같은 밈으로 맞서는 정도다. 미디어에서는 이를 '세대 전쟁'처럼 보도하지만, 몇몇 커뮤니티의 사소한 움직임을 과장해서 이슈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문화로 연결되어 서로를 탐닉하는 세대들

적어도 문화에서는 세대 사이의 교류가 이렇게 활발했던 시대가 없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민요 소리꾼 이희문의 씽씽밴드, 이날치의 판소리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현대무용이 만들어낸 앙상블에 열광한다. 1998년에 나온 양귀자의 소설 《모순》이 텍스트 힙에 빠진 20~30대를 통해 2025년의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했다. 경성 시대의 의상을 재현하기 위해 100년 전의 잡지 《별건곤》을 뒤지는 청년들도 있다.

이는 단순한 복고 취향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전 시대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찾아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인터넷 아카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어떤 시대의 어떤 문화든지 뒤지고 재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이전 세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반대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10대나 열광하던 아이돌 팬덤에 과감히 끼어든 50~60대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중년 공무원들도 '충주맨'이나 '춘천시 김근황' 등의 홍보 활동을 보며 경직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여러 기업에서 활용하는 '리버스 멘토링'도 흥미롭다. 윗세대는 정통의 대면 영업법, 아래 세대는 SNS 활용법을 서로 가르쳐 주며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있다.

고정관념의 해체, 이제는 공존을 연습할 때

'이런 세대는 당연히 이럴 거야'라는 고정관념도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6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20대는 건강과 몸 관리에 예민해졌다. 전통적으로 '아저씨 산업'으로 여겨진 프로 스포츠에도 젊은 여성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차례로 올라가던 사다리가 해체되면서, 같은 연령대의 관심사와 가치관도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물론 세대 간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젊은 세대는 부족한 일자리와 천정부지의 집값 때문에 진입로가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 실버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 체계가 무너진 세상을 두려워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출생률의 저하로 세대 간의 적절한 임무 교대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수록 명심하자.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다른 세대와 공유해야 할 시간도 늘어난다. 유럽에서는 독거노인이 청년에게 집 일부를 빌려주는 '세대 간 동거' 프로그램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멸 위기의 지방 도시에 청년들의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처럼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다양한 아이디어가 절실한 때다.

"모든 세대는 자신이 전 세대에 비해 지적이기를, 다음 세대에 비해 현명하기를 바란다." 영국의 문인, 조지 오웰은 말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내가 어떤 세대이든, 다른 세대의 지성과 현명함을 염치없이 배우도록 하자.



이명석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 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포착해 왔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도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겨레신문>에 '이명석의 어차피 혼잔데'를 연재 중이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풀어보는
세대 간 소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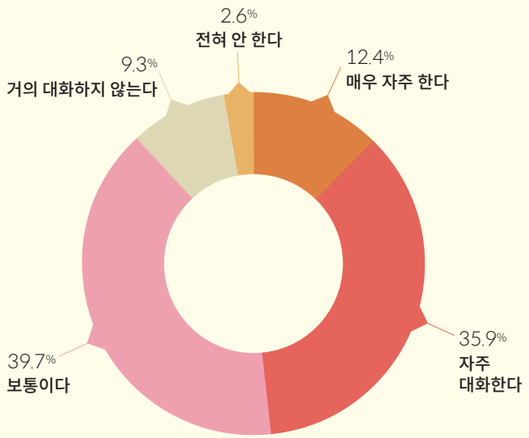
세대 간 갈등은 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했는데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한다.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상대의 방식을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다름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하면 된다. 대화하려는 노력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더해질 때, 비로소 소통이 이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대 관련 사회 통계를 살펴보고, 책 속에서 그에 대한 통찰을 찾아본다.

추천 도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1

평소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나요?

대다수는 가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9.3%)'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2.6%)'를 합하면 약 12%에 달한다. 즉 10명 중 1명 이상은 가족 간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여도 실제로는 일정 부분에서 소통의 틈이 존재하며,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료_(주)피앰아이, 2025 가족 인식 조사, 2025. *대상_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가족 공부》

최광현 지음 | EBS Books | 2022



가족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 책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녀, 부부, 세대 간 갈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갈등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

피에르 쌍소 지음, 이진희 옮김 | 드림셀러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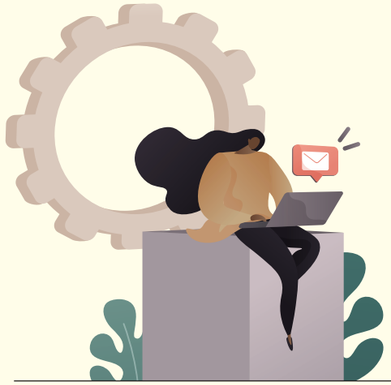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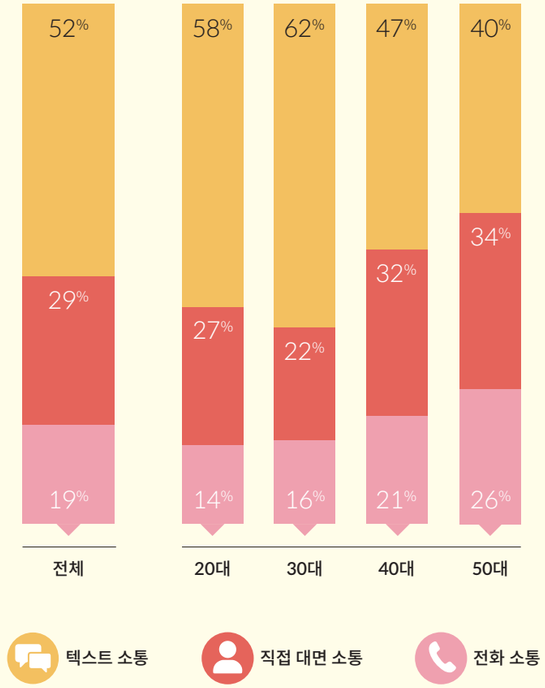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이 오가는 깊은 대화는 줄어들고 있다. 저자는 대화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인간 존재의 방식으로 바라보며, 듣기와 침묵의 의미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특히 '느린 대화'의 가치를 강조하며,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하나의 성찰적 행위로 제시한다.

2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전화가 주요 소통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기반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전화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텍스트 소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에서 그 비중이 특히 높았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도 직접 대면이나 전화보다 텍스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점차 텍스트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일상 속 '전화 통화' 경험 관련 조사, 2023.
*대상_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망원동 브라더스》

김호연 지음 | 나무옆의자 | 2013



서로 다른 세대의 남자 네 명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각자의 삶은 팍팍하지만, 소통하며 관계를 쌓아간다. 가난과 실업 같은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혼자서는 버거운 삶도 같이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들의 모습은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한다.

《정조처럼 소통하라》

정창권 지음 | 사우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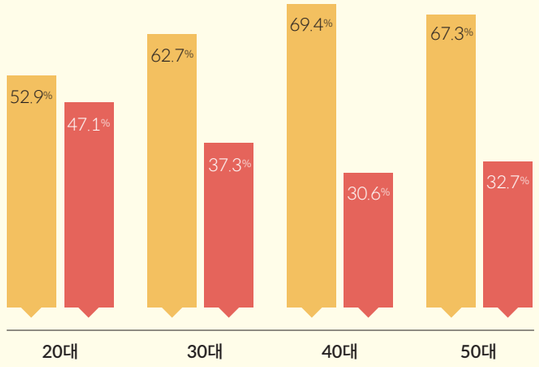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이메일과 SNS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즉시 소식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이런 편리한 수단이 없던 과거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류했을까? 이 책은 현대인에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조선시대 인물 12명이 쓴 편지로 보여준다.

3

직장 생활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나요?

직장 생활에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65%로,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세대 간 차이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40대에서 그 비율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도 67.3%로 뒤를 잇는다. 이는 중견 직장인들이 업무 방식, 소통 방식, 조직 문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등에서 젊은 세대와 눈에 띄는 차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대는 52.9%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해 비교적 덜 체감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어 세대 간 이해와 조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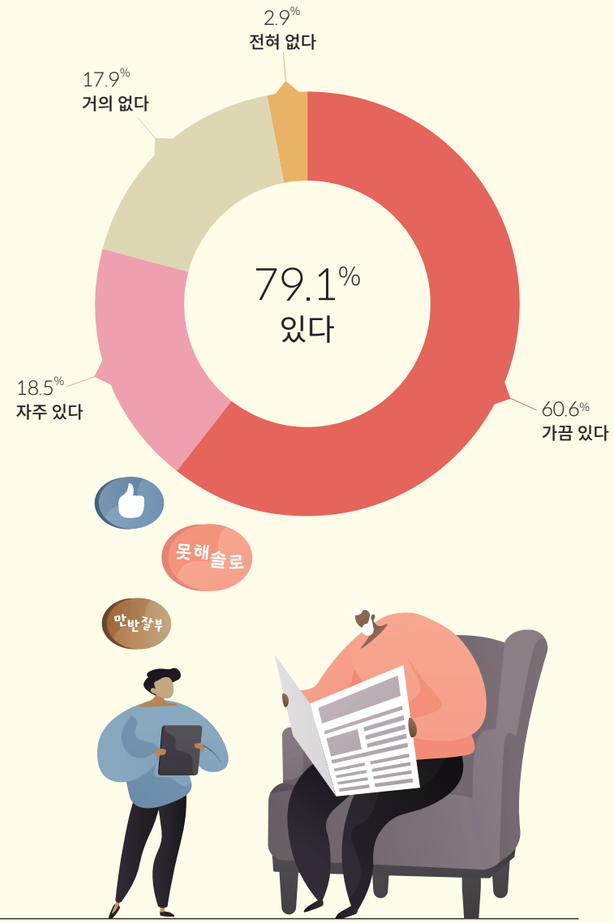


*자료_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 2020.
*대상_30개 대·중견기업 직장인 약 1만 3,000명

4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 대화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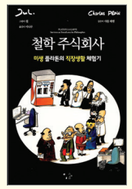
신조어는 같은 세대 안에서는 친밀감을 높이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세대가 달라지면 대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조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라는 응답이 60.6%,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18.5%에 달해, 상당수가 세대 간 언어 차이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경험이 '거의 없다'라거나 '전혀 없다'라는 응답은 20% 남짓에 그쳤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조어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와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세대 간 간극을 좁힌다는 점이다.



*자료_에듀윌, 신조어, 2025. *대상_20~50대 성인 남녀 780명

《철학 주식회사》

샤를 페팽 지음, 이나무 옮김, 쥘 그림 | 이숲 | 2015



대학 졸업 예정인 플라톤이 인턴으로 취직한 '코기톱'은 모든 직원이 철학자다. 소크라테스, 니체, 푸코 등과 함께 일하며 벌어지는 플라톤의 다양하고 엉뚱한 실수를 그린다.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직장생활 속에서 부딪히며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과 소통 문제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조선 직장인 열전》

신동욱 지음 | 국민출판 | 2019



이 책은 조선시대 위인들도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직장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조선'이라는 조직에서 왕이라는 CEO와 함께 일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장인으로서의 태도와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커리어 고민으로 흔들리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조선시대 선배들의 조언을 건넨다.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 지음 | 퍼블리온 | 2021



한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세대는 Z 세대다. 저자는 세대 갈등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짚으며, 세대 구분보다 시대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흔히 '요즘 애들'로 치부되는 Z 세대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꿀 미래의 주역임을 알려주며, 그들을 중심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시사점을 일깨운다.

《말의 트렌드》

정유라 | 인플루엔셜 | 2022



요즘 말에는 디지털 세상 속 대중의 정서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 이 책은 MZ 세대 신조어와 줄임말을 소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과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의 조언대로 신조어 단어장을 업데이트하며 언어를 확장하면 정체성은 분명하게, 관계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오직 궁금함으로 열리는 세계

두 권의 책으로 바라보는 세대 공감

나이라는 숫자는 종종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 어리면 어려서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나이가 들면 꽉 막혔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소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는 한다. 하지만 그 견고한 벽을 허무는 열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작지만 끈질긴 호기심 하나면 충분하다.

글. 박사(북칼럼니스트)

서로를 너무 모르기에 시작해야 하는 대화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말간 얼굴을 마주 보며 존댓말을 먼저 내놓아야 할지 반말을 써야 할지 고심했다. 그러나 서먹서먹하던 대화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자 탄력이 붙었다. 즐겨 쓰는 펜의 브랜드에 대해, 일기 쓰는 습관에 대해, 기록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기록의 쓰임새를 이야기하다가 나는 "그런데 10년 전에 쓴 일기를 봐도 지금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봐요."라며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맞장구치며 열혈 호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당황해서 "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라고 했더니 그는 이어 말했다. "10년 전에 저는 여섯 살이었는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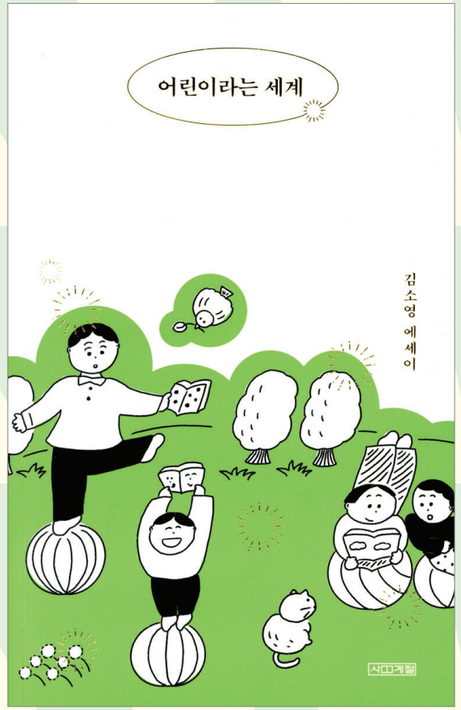
대화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들 한다. 대화를 나누어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한다. 세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이해할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대화를 하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에는 서로를 너무 모른다. 뱅글뱅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화 선배의 노하우를 듣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온전한 세계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많은 아이에게 귀 기울였던 경험이 풍부한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생생한지 알려준다. 그는 어린이들을 단지 훈육하고 통제해야 할 미숙한 존재라 여기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때 그들과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가 어린이들과 대화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는 존중이다. 그는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다.(14쪽)"라고 단언한다. 그가 만나는 어린이는 서툴지만 직접 신발끈을 묶으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18쪽)"라고 말하는 의젓한 인간이다. 독서교실의 화장실을 쓸 때도 "저 화장실도 좀 빌릴게요.(43쪽)"라고 말하는 예의 바른 인간이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에 "열심히 하세요. 안 됐는데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134쪽)"라고 조언하는 현명한 인간이다.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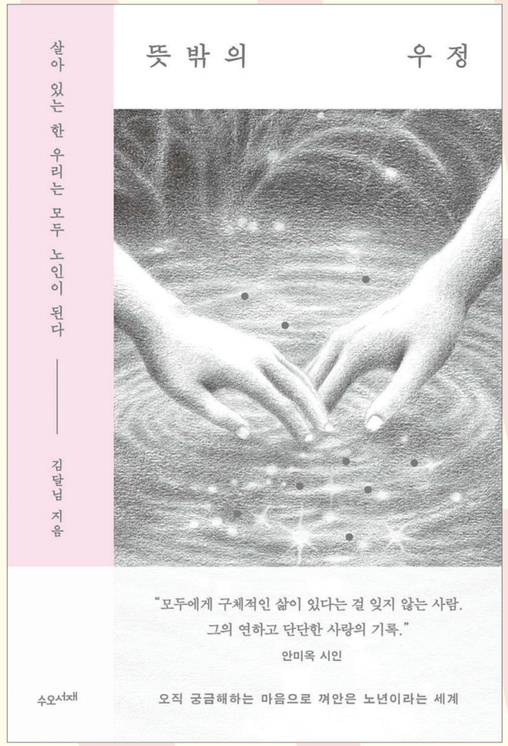
세상의 어린이를 향한
쾌활하고 다정한 목소리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지음 | 사계절 | 2020

사실 우리는 어린이들과 대화하면서 놀라고 즐거웠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의 신선한 시각에 감탄하고 한 수 배울 때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때 현인을 대하듯 하다가도, 또 금세 바보를 다루듯 한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어떤 대화가 가능할까? 저자는 말한다. "어린이의 직관은 무엇을 꿰뚫어 보는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힘이다. 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를 수가 없다.(235쪽)"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도 필요한 힘이겠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린이와의 대화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저자는 어린이를 '꽃봉오리'에 비유하는 것에,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이라 호명하는 것에 항의한다. "내가 아는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삶의 순간순간은 새싹이 나고 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시드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지나고 보면 그런 단계를 가졌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한 모든 순간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163쪽)"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세대를 초월해
서로를 보듬는 반짝이는 연대
《뜻밖의 우정》
김달님 지음 | 수오서재 | 2025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있는 시간의 지혜

어린이를 꽃봉오리에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노인들에게도 한다. 그들을 낙엽이나 일몰에 비유하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식으로 말하자면, 그들도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대화할 때는 역시 연령대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달님의《뜻밖의 우정》은 또 다른 세대, 노인과의 대화를 위한 힌트를 준다.

첫 번째 책《나의 두 사람》에서 고백했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릎 밑에서 자라나 노인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는 저자는 노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하며 그들이 시간의 힘으로 얻은 지혜에 감탄한다. "요즘엔 부쩍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더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눈을 뜨면 시작되는 하루에 마음 다해 감사하며 사는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이라고(60쪽)" 말하는 이승기 노인에게 그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늙으면 돼."라는 답을 얻는다.

평균연령 85세의 힙합그룹을 만들고, 열렬하게 가수를 덕질하면서 "다 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149쪽)"라고 말하며, 노래교실에서 추지도 못하는 막춤을 추고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178쪽)"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다 늙어서 주책이야."라며 내밀던 혀가 쏙 들어가게 하는 대화를 읽으며 나는 내 노후를 상상한다. 노인이 현인이라고만 여기는 것도 편견이겠으나,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저자는 수많은 노인을 만나며 좋은 대화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당신이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든 듣고 싶다는 마음.(253쪽)"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뜻밖의 세계

모든 대화는 뜻밖이다. 사람들은 각자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거기에 세대의 차이까지 겹치면 그 대화는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상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대화를 망치는 이유는 예상을 전제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린이는 미숙하다는 예상. 노인은 고루하다는 예상.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흐르는 말의 파도를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사 북칼럼니스트.책에 대해, 문화에 대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쓰고 기록하고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해 왔다. 주요 저서로《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나에게 여행을》,《가꾼다는 것》등이 있다.

주제 돌아보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에 대하여

“여기 우리가 걷는 길옆의 나무들과 풀과 돌과 냇물과 그 밖에 우리가 보고 온 모든 것들. 그리고 어두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 별들까지도.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먼 거야. 앞으로 네가 살면서 걸어야 할 길도 그렇고.”

“알아요, 아빠. 무슨 말인지.”

“산꼭대기에서 보았을 때보다 네가 더 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도 그래요.”

“그게 이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야. 오늘 네가 아빠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주었지.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대해서도. 그게 아빠와 너희들 사이와 같은 건데.”

“사랑해요. 아빠.”

“그래. 아빠도 널 사랑한다.”

“손잡아요, 아빠.”

이순원《아들과 함께 걷는 길》中에서 | 실천문학사

두 번째 장.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지면을 통해 본 식(食)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상
1934년의 식탁 풍경

20
사서 큐레이션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사서가 추천하는 행복 탐구 도서 12권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다시 펼쳐진 소녀의 무지개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풍경과 삶이 스며든 휴식처 같은 공간
추억이 깃든 경춘국도에서 만난 도서관

32
세계의 도서관
2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책들을 만나다
프랑스 국회도서관

지면을 통해 본 식(食)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상

1934년의 식탁 풍경

신문은 각종 사건과 일상의 단편을 기록하지만, 그 지면에는 시대의 흐름이 스며 있다. 그만큼 지면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은 물론 시대적 조류와 역사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1일 자 8면, 가정(家庭) 섹션이 그러하다. 겉으로는 평범한 기사들이지만, 그 속에는 '식(食)'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와 당대의 시대적 조류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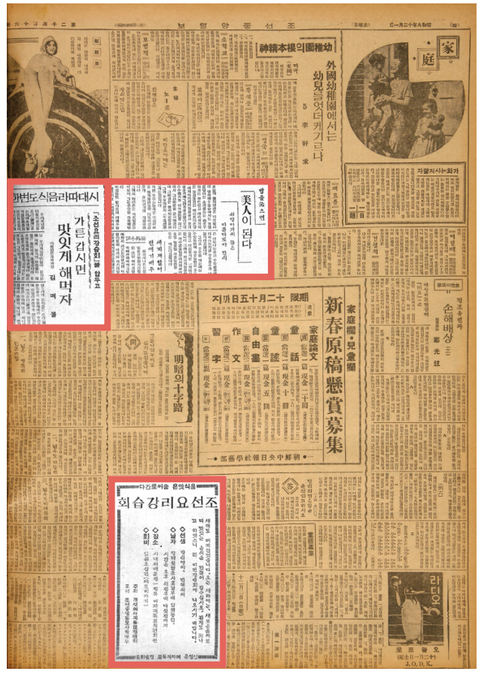
글. 윤덕노(음식문화평론가,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저자)

조선 요리의 전환기

신문의 가정 면에는 3건의 음식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하나는 조선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조선요리강습회를 알리는 사고(社告)다. 하단 중앙에 '음식맛은 솜씨로간다, 조선요리강습회'라는 문구와 함께 박스로 처리됐다. 요지는 음식 맛은 솜씨로 간다는 제목에 녹아 있고, 강사는 방신영 씨와 민혜식 씨이며, 회비가 일 원 오십 전이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와 연계해 중간 머리기사로 좌측 3단 처리된 조선요리강습회 홍보 기사가 실렸다. '시대 따라 음식도 변한다'라는 어깨 제목과 '가튼 갑시면 맛있게 해먹자'라는 제목이 그럴듯하다. 기사 내용은 엄마와 할머니의 손맛을 따라 전해 내려온 조선 음식은 '너무나 맹목적, 너무나 전통적,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조선 요리도 영양을 고려한 계량화와 맛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합리적·과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요리강습회라는 행사와 그에 따른 홍보성 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애써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제강점기 낙후된 조선 음식의 요리법을 개선하자는 계몽적인 성격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단세포적 성격을 넘어선다. 국제적 조류와 시대적 흐름의 궤도를 같이한다. 조선요리강습회는 조선중앙일보사가 처음 마련한 행사가 아니다. 1920~30년대 경성에서는 여러 신문사를 비롯해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등의 잡지사와 백화점, YWCA 등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요리강습회가 열렸다. 요리법 소개와 관련 보도도 쏟아졌다. 《조선요리제법》의 저자 방신영, 요리연구가 민혜식 등은 이때 이름을 떨쳤던 인기 강사다. 《조선요리제법》을 비롯해 이용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등 1920년대 초반 발행되었던 근대 우리 음식 조리사가 연이어 증보판을 낸 것도 이 무렵이다.



시대따라 음식도 변한다:
『조선요리강습회』를 압두고 가튼 갑시면 맛있게 해먹자
서울: 朝鮮中央日報社, 1934

근대가 요구한 새로운 부엌

1930년대 조선에서는 왜 이렇게 요리강습회와 요리 관련 보도, 조리서가 유행했을까. 구체적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런 추세는 비단 조선에만 국한된 조류는 아니었다. 1920~30년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선진국에서도 신문과 잡지사 주최의 요리강습회와 요리 관련 보도가 유행했다. 신문의 가정 섹션은 일제강점기 우리 언론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조류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우선 도시 중산층의 형성과 도시화의 진전, 산업화의 확산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 교육 기회 확대, 합리적인 가사 운영 요구의 증대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에는 지금의 생활경제학과 등으로 불리는 가정학과 등이 설치되었으며, 가정학 교육이 강조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시화의 진전, 신여성의 등장과 더불어 요리 역시 단순한 손맛이 아닌 근대 주부가 배워야 할 지식이자 기술로 인식되었다. 조선요리강습회의 회비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일 원 오십 전이었음에도 인기가 높았던 이유일 것이다.

밥을 안 먹어야 진짜 미인

가정 섹션에 실린 음식과 연결된 또 다른 기사인 '밥을 굶으면 美人이 된다'도 비슷한 맥락이다. '서양아가씨들은 아플다토아 단식'이라는 부제목과 헐리우드 미녀 여배우가 고운 이유는 주말 사흘을 우유만 먹으며 다이어트하기 때문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내용의 기사다. 다이어트의 태동을 전한 단편적 기사이지만, 실상은 1930년대 미국 사회의 미적 기준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여성의 지위 변화 등 사회 현상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테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주말 브런치가 유행한 것 역시 1930년대다. 1934년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였음에도 조선의 여성들이 국제적인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음을 당시 언론은 보여준다.

윤덕노 음식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25년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5년 이상에 걸친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음식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했다. 저서로는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과일로 읽는 세계사》, 《음식이 상식이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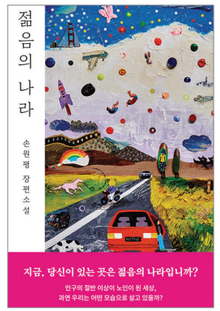
사서 큐레이션

당신은 오늘 '행복'한가요?
사서가 추천하는 행복 탐구 도서 12권

행복은 시대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청년의 고민, 일상의 소소한 기쁨, 철학적 성찰, 과학적 접근까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서가 추천하는 책들을 통해 현대인이 느끼는 '행복'의 풍경을 살펴본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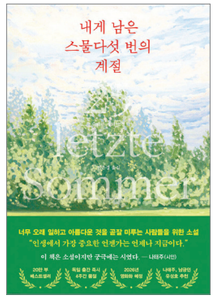


《젊음의 나라》

손원평 지음 | 다즐링 | 2025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젊음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마음이 닿는 순간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낯선 미래의 풍경 속에서 찾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세대 구조가 역전되어 청년들이 소외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배우를 꿈꾸던 주인공 유나라는 노인복지시설 '유카시엘'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노인과 청년, 이주민과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을 마주한다. 이 경험을 통해 유나라는 각 세대가 겪는 갈등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불확실한 시대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권한다.

국외문학



《내게 남은 스물다섯 번의 계절》

슈테판 셰퍼 지음, 전은경 옮김 | 서삼독 | 2025

이 책은 오래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던 주인공이 시골 마을의 괴짜 농부 '카를'을 만나며 시작된다. 카를과 함께 보내는 나날 속에서 주인공은 햇살이 머무는 공기, 흙을 만지는 손끝의 감각, 좋아하는 사람과 조용히 웃는 순간 등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과 '내 곁의 행복'을 하나씩 되찾는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소소한 일상에 있음을 깨달은 주인공은, 더는 삶과 싸우기보다 삶이 자신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음을 자각하며 다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한다. 이 여정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짚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인문예술 ❶



《아주 오래된 행복론》

알랭 지음, 김정은 옮김 | Arte | 2025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쉽게 알지 못한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야 하는 습관"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그가 신문에 연재한 철학적 단상 '프로포(Propos)'를 엮은 것으로, 일상 속 생각과 행동을 통해 행복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행복을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사유하고 실천하는 습관의 결과로 보며,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강조한다. 소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혜의 기록이다.

인문예술 ❷



《바닥짐 위의 행복 :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정종민 지음 | 지식터 | 2024

행복이란 무엇일까. 고대 철학자들은 '행복'을 삶의 의미이자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지만, 애써 추구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결국 행복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저자는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풍족함과 명예, 사랑, 건강을 모두 갖추고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삶의 무게중심을 내면에 둘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인문예술 ❸



《파란색 미술관 : 감정에 푸른 물결을 일으킨 15인의 화가들》

강민지 지음 | 아트북스 | 2024

행복은 어떤 색일까. 화가라면 행복을 표현할 때 어떤 색을 선택할까. 저자는 자신이 사랑했고, 바라보며 행복을 느껴온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중에서 저자를 사로잡은 색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파랑. 파란색을 사랑한 열다섯 명의 화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평온함과 우울함이라는 파랑의 양면성을 조명한다. 바다처럼 한없이 깊기도, 하늘처럼 끝없이 맑기도 한 수많은 파랑의 스펙트럼 속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파랑의 온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문예술 ❹



《단단한 행복 :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는 행복에 관한 철학 수업》

양현길 지음 | 유노책주 | 2025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이 책은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행복의 특성을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자족성',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궁극적 목적인 '목적성'이라고 설명한다. 삶의 순간마다 과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하는 '중용'을 강조한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지침이 되어준다.

사회과학 ❶



《최재천의 희망 수업》

최재천 지음 | 샘터 | 2025

급변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권한다. 생태학자이자 시대의 지성인인 저자는 개인과 사회, 인류가 마주한 위기를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 AI 시대, 통섭, 공부와 독서, 글쓰기, 현대사회 문제, 생태적 전환 등 11가지 화두를 풍부한 경험과 사유로 연결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중심의 관점을 넘어 타인 및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인'의 삶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희망의 길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학문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통찰과 담소하듯 따뜻한 문체는 독자에게 자신과 세계를 돌아보게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꿔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한다.

사회과학 ❷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

최신한 등 공저 | 사유와 공감:이츠북스 | 2025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 책은 '나이 듦과 웰에이징'을 주제로 9명의 저자가 함께 쓴 노년의 행복론이다. 노년에 경험하는 소외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고, 그 소외를 극복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노년을 죽음을 앞둔 절망의 시기가 아닌, 자기 삶을 성찰하고 현재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본다.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사회과학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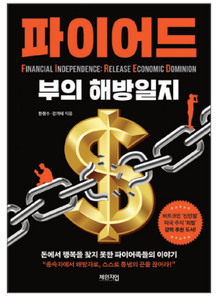


《먼저 온 미래 :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장강명 지음 | 동아시아 | 2025

무엇이 우리 삶의 '행복'과 '가치'를 결정하는가? 우리가 추구해 온 가치들이 기술의 급격한 진보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할까? 소설가 장강명은 전·현직 프로 바둑 기사 30명과 바둑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하며, 'AI가 이미 바둑계에 들어왔다'라는 경험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풀어낸다. 바둑 기사들이 겪은 충격과 좌절,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을 기록하며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저자는 AI가 문학, 예술 등 다른 분야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며,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지를 질문한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호나 공포 대신 구체적 사례로 독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사유 깊은 안내서다.

사회과학 ❹



《파이어드 : 부의 해방일지》

한정수·강기태 지음 | 체인지업 | 2025

불확실한 경쟁 시대, 이 책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저자들이 돈을 넘어선 행복의 가치를 실천한 경험을 전한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저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이어드'라는 신조어를 제안하는데, 이는 부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자'를 뜻한다. 책에서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삶의 변화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돈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관계, 성장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를 발판으로 주체적인 삶과 행복을 설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준다.

자연과학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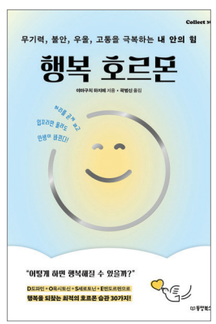


《회복탄력성의 뇌과학》

아디티 네루카 지음, 박미경 옮김 | 현대지성 | 2025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와 마주한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며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저자는 실제 환자 사례를 연구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리셋 버튼 5가지'를 제안한다. 일상적 습관 변화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들이다.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해 진화한 방어 체계지만, 현대인은 업무와 관계 등 끊임없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만성 피로와 번아웃을 겪는다. 저자는 충분한 수면, 미디어 사용 제한, 횡격막 호흡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과학 ❷



《행복 호르몬》

야마구치 하지메 지음, 곽범신 옮김 | 동양북스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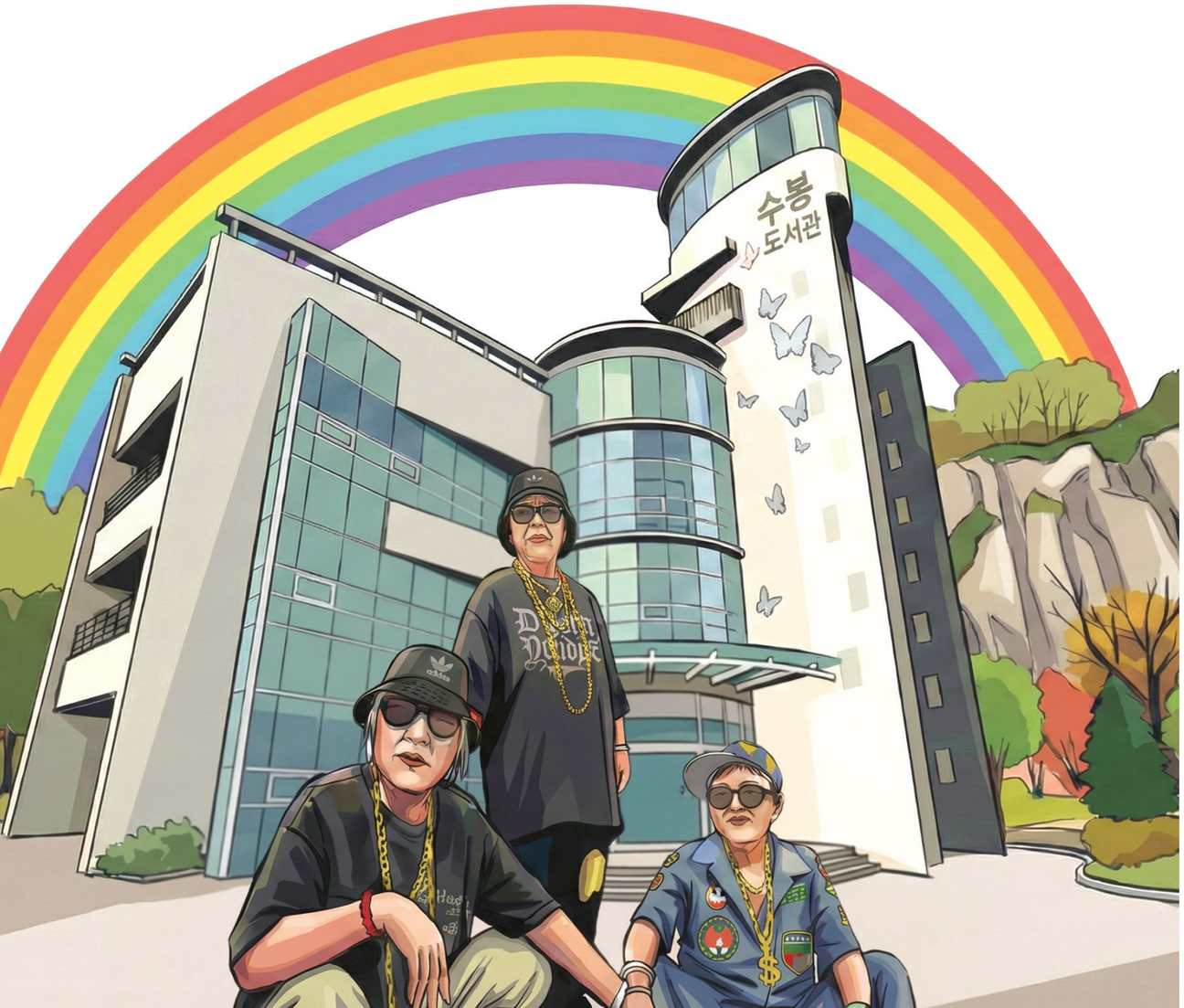
누구나 바라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행복'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책으로, 복잡한 신경과학과 생리학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저자는 행복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속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하며, 도파민·옥시토신·세로토닌·엔도르핀 등 '행복호르몬'을 중심으로 행복의 메커니즘을 밝힌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호르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상 속 다양한 실천법도 제시한다. 행복에 관한 뇌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길 역시 분명해진다. 막연한 감정으로만 여겨졌던 행복을 과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 책은 독자에게 따뜻한 지적 여정이 되어줄 것이다.

도서관에서 다시 펼쳐진 소녀의 무지개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 도서관은 과연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지만, 한편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유독 문턱이 높은 곳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나를 다시 찾고, 이야기가 무대와 노래, 그리고 축제가 되어 세대를 아우르는 현장. 도서관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다시 뛰게 했는지, 그 활기찬 변화의 기록을 따라가 본다.

취재. 신병철 | 사진. 신성욱




1


2

1 특화사업을 본격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확장시킨 노인 마당극 동아리 ‘은빛동아줄’

2 지역 어린이들을 찾아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들

멈춰 선 시간, 도서관에서 다시 흐르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오랜 시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지만, 도서관은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노년층에게 도서관은 책을 빌려 읽는 곳, 혹은 손주들과 들르는 공부방 같은 장소로 여겨졌다. 특히 침침한 시력 탓에 책을 읽는 일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어르신들에게 도서관은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했다.

수봉도서관은 지역적 환경과 인식의 벽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도서관은 어르신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은 일회성 프로그램 하나를 덧붙이는 것을 넘어,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깊이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고민은 노년층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특화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낯선 공간에서 꿈이 자라는 아지트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2025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에서 최우수 사업에 선정된 수봉도서관의 특화사업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난 2012년 처음 그 뿌리를 내렸다. 지역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손을 잡고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르신들이 도서관 문턱을 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 첫 계기는 일자리라는 경제적 목적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삶에는 그보다 더 값진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전하는 ‘무릎교육’을 통해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의 만족감을 넘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당당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쁨은 노년기에 잃어버리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깨우고 삶의 활기가 되었다.

수봉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자기 계발을 지속하고 돈독한 노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은 은퇴 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소하며 능동적인 문화 생산자로 거듭났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곧 어르신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아지트로 자리 잡았다. 일자리로 시작된 인연이 삶을 풍요롭게 꽃피우는 단단한 주춧돌이 된 것이다.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218
전화번호 032-870-9100
휴관 월요일, 공휴일, 임시휴관일(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3 인천 곳곳을 배경으로 촬영한 힙합곡 <수봉 아이할>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이 된 할머니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은 노인 마당극 동아리 '은빛동아줄'에서 본격화되었다. 수봉도서관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무릎 맡에서 들려주던 옛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환하고자 했다. 입말과 몸동작,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마당극은 할머니들에게 관객이 아닌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경험을 선사했고, 연습과 공연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다.

마당극은 도서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등을 찾아가는 순회공연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모습을 본 아이와 가족이 다시 도서관을 찾는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아현 사서는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마당극 공연을 한다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이 세대를 잇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라고 전한다.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시도도 함께 진행되었다. 할머니들의 삶과 기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상 아카이브 <그래니스토리>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할머니들이 직접 들려주는 구술은 지역에서 살아온 노년층의 삶을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사를 증언하는 사료가 되었다. 기록은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영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개인의 기억이 사회의 자산으로 공유되는 이러한 경험은 도서관이 지역의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공공 아카이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할머니들의 삶과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래니스토리> 상영회 포스터

노래와 책으로 이어진 삶의 이야기

문화예술로의 확장은 음악 프로젝트로도 이어졌다. 그 시작은 노래 <소녀의 무지개>였다. 이 노래는 <그래니스토리>에 출연한 할머니들이 옛 추억과 그 시절의 꿈, 현재의 삶을 잇는 이야기를 담아 직접 불렀다. <소녀의 무지개>가 서정적인 포크 장르의 합창곡이었다면, 지난해에는 아이돌 콘셉트 그룹 '아이할(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을 결성해 힙합 장르의 곡 <수봉 아이할>을 녹음하며 랩에도 도전했다. 여기에 음원 발표를 기념해 인천 곳곳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 제작도 진행되어 할머니들은 새로운 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할머니들이 겪은 옛일을 엮어 출간한 책《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시리즈

이야기는 책으로도 정리되었다. 할머니들이 실제 겪은 옛일을 엮어 출간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시리즈는 말로 전해지던 기억을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개인의 경험은 책을 통해 공유되는 자산이자, 지역 생활사를 축적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을 넘어 작가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도서관의 풍경

수봉도서관의 특화사업은 기록과 공연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나 어릴 적에'로 그 외연을 확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어릴 적 경험했던 전통놀이와 추억을 그림이나 연극, 놀이 도구로 재구성하고, 이를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어르신들은 축제 기획과 준비를 위한 예술 워크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미래 세대에게 전수한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수봉도서관의 특화사업은 노년층에게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를 넘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도서관을 사람과 기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이는 도서관이 책을 읽는 장소라는 전통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를 자산화하고 세대를 융합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이 도서관이라는 무대에서 예술로 꽃피우는 이 풍경은 앞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니 인터뷰



수봉도서관 권아현 사서

권아현 사서는 마당극 공연이 열리던 날의 풍경을 잊지 못한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 살며 자신의 꿈은 미뤄두었던 할머니들이 그날만큼은 무대 위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의 자녀가 찾아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며 건넨 인사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도서관이 어르신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느낀 성취감과 자존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노년층 특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꿈을 꾸는 곳이니까요."

풍경과 삶이 스며든 휴식처 같은 공간

추억이 깃든 경춘국도에서 만난 도서관

고속도로가 놓인 뒤, 경춘국도는 이제 사람들의 추억 속 길이 되어가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망우리고개에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온의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은 한때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주말마다 여행객의 설렘이 차창 밖 풍경과 함께 흐르던 길 위에는 북한강의 물길과 작은 마을, 오래된 식당들이 겹겹이 시간을 쌓아왔다. 경춘국도를 따라 달리며 만난 네 개의 도서관은 그 시간의 결을 따라 이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었다.

취재. 한율 | 사진. 이승헌



1



2

아이들의 세상을 품다

교문방정환도서관

경춘국도의 초입에서 만난 '교문방정환도서관'은 1994년 구리시 최초의 도서관으로 문을 연 뒤, 2024년 2월 '방정환 특화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어린이 독서를 강조해 온 방정환 선생의 묘소가 인근 교문1동에 자리하고 있어, 이 도서관은 공간 자체로도 그의 뜻을 잇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방정환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방정환테마존을 중심으로, 문학상 수상작과 어린이 잡지를 만날 수 있는 방정환 관련 특화자료 전시 공간, 가상공간에서 선생의 묘역과 구리9경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체험존, 그리고 선생이 발간한 잡지 《어린이》 영인본과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소파의 서재'가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춰 읽고, 보고, 듣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도서정보시스템과 디지털 북큐레이션, 갤러리형 전시 공간 등 첨단 환경도 함께 갖췄다. 지하 북카페와 야외 휴식 공간인 '성큰가든', 2층 테라스와 3층 쉼터는 독서와 휴식의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며, 이용자가 자신의 속도로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1 교문방정환도서관은 미디어동화체험존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도서 목록과 독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북큐레이션

사유의 깊이를 넓히다

정약용도서관

교문방정환도서관을 뒤로하고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정약용도서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리며 누구나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여덟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중앙도서관의 상징인 개방형 원형 홀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 설계는 북유럽 스타일의 감각적인 공간 구성과 채광을 바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다. 넓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개방감과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조는 기존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높은 층고와 조명, 사방을 채운 서가가 한꺼번에 시야를 장악하며 공간의 규모를 체감하게 한다.



3



4



5

3 정약용도서관은 높은 층고와 조명, 자연 채광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이 특징이다.

4 대표 저서를 비롯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정약용자료실

5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독서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어린이자료실

웅장한 로비 옆에 어린이자료실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다. 2층과 3층에는 방대한 장서와 함께 독서와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2층 한편에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모아둔 전용 자료실, '정약용 자료실'이 있다. 이 작은 전시 공간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저작을 주제별·출판사별로 정돈해 동일한 저작을 출판사별로 비교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조선 명필의 흔적을 만나다

한석봉도서관

남양주를 지나 가평으로 접어들면 풍경이 달라진다. 도시의 밀도는 낮아지고, 창밖에는 산과 강, 겨울빛 햇살이 천천히 흐른다. 국도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가평군수였던 한석봉의 이름을 담아 지은 이 도서관은 잠시 멈춰 책과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쉼의 공간이다.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열람실, 방문객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 자료실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신체 조건을 고려한 인테리어와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독서 공간으로 활용한 설계는 공간에 활력을 더한다. 2층에 자리한 문헌정보실은 한석봉도서관의 중심 공간으로, 밝은 조명과 풍부한 자연 채광이 어우러져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나 전통적인 도서관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춘 점이 돋보인다. 함께 마련된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PC와 DVD 이용이 가능해 자료 열람은 물론 문화·여가 기능까지 아우른다.



6 한석봉도서관은 계단을 독서 공간으로 활용한 독특한 설계로 새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7 밝은 조명과 풍부한 자연 채광으로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문헌정보실

책과 숲이 흐르는 공간을 누리다

춘천시립도서관

마지막 종착지, 춘천에 다다르니 설렘이 한층 커진다. 다채로운 풍경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맛 덕분이다. 여기에 자연과 도시의 일상을 건축적으로 풀어낸 '춘천시립도서관'이 여행의 기분을 한층 끌어올린다. 석사공원과 맞닿은



8 전통 누각을 형상화해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린 춘천시립도서관의 모습



9 마치 숲속에서 책을 읽듯, 탁 트인 창 너머로 공원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은 전통 누각과 정자의 구조를 모티브로 한 골격 위에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중앙 공간의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로 시각적 확장감을 더했다. 숲의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구조 덕분에 마치 숲속에서 책을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다. 장난감도서관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수 장난감과 연령대별 안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교구를 갖추고 있다. 이어지는 어린이도서관은 책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다. 상층부로 올라서면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진다. 제1·2자료실과 정보검색실은 학생, 직장인, 수험생 등 다양한 이용자가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료 열람과 학습, 정보 탐색이 하나의 동선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창 너머로 펼쳐지는 공원의 풍경은 긴 독서 시간 속에서도 시야와 마음을 환기하는 요소가 된다.

길 따라 찾아가는 도서관



2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책들을 만나다

프랑스 국회도서관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5개의 돔 천장화를 자랑하는 프랑스 국회도서관(La Bibliothèque de l'Assemblée nationale)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 도서관은 방대한 장서의 저장 공간이자, 프랑스 정치와 사회의 근간을 보여주는 역사적 보고이기도 하다. 장 자크 루소의 수서본 《고백록》, 잔 다르크 재판 문서 원본 등 수많은 고서와 문서가 보존되어 프랑스 역사 속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 마주하며 그 시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천장화와 장서가 함께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프랑스의 예술과 지식, 역사와 철학을 만난다.

글. **홍용진**(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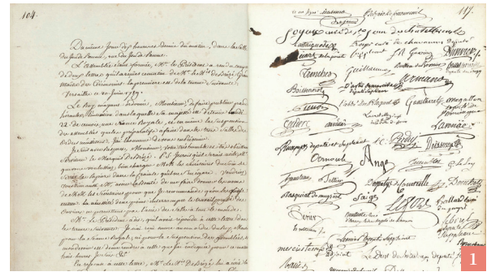
프랑스 국회도서관이 자리한 부르봉궁은 1722년 부르봉 공작부인을 위해 지어졌고, 나폴레옹 시대 그리스식 외관을 갖춘 뒤 1795년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귀스트 비투(Auguste Vitu)의 삽화, 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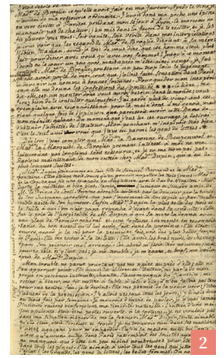
프랑스혁명과 함께 탄생한 도서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다. 그 본격적인 출발은 베르사유 궁전 앞 왕실 테니스코트에서 이루어진 선서였다. 자크루이 다비드의 회화로도 유명한 이 선서는 신분제에 따른 '총신분회(Assemblée des États généraux)'를 벗어나 동등한 국민의 회의체인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즉 국회로 대의제를 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프랑스 제5공화정 체제에서 하원 역할을 하는 국민의회(국회)는 프랑스혁명과 함께 태어난 만큼, 혁명과 관련해 또 혁명 기간에 정부가 수집하고 간행한 여러 문서와 책자를 수집한 곳이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이 기존 왕실 도서관의 변형이라는 점과 달리, 프랑스 국회도서관은 귀족이 보유하고 있던 개별적인 장서(도서관)를 국유화하면서 혁명 당시 새롭게 등장한 도서관이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및 복고왕정 체제 아래에서 국회의 정치적 기능은 매우 축소되었지만, 프랑스 국회도서관의 장서 수는 1790년대에 1만 2,000권에서 1830년대에 3만 5,000권으로 계속 증가해 나갔다.

국회와 프랑스 국회도서관은 공화정 체제가 확고해진 제3공화정 시기부터 현재 센강 좌안에 위치한 부르봉궁(Palais Bourbon)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과 1961년의 폭발 사고로 부르봉궁이 크게 손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으로 장서는 무사히 보존할 수 있었지만, 부르봉궁이 자체적으로 뽐내고 있던 여러 문화재는 불행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천장화를 들 수 있다. 의정 활동과 희귀 자료 이전 등으로 복원이 어려웠으나, 1년간 부르봉궁의 세심한 복원과 장서 디지털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2025년 프랑스 국회도서관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1 《테니스 코트의 선서》는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출처_Assemblée nationale)

2 장 자크 루소가 직접 집필한 《고백록》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학 작품이다. (출처_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3 기욤 드 로리스와 장 드 뫼운의 수서본 《장미 이야기》는 13~14세기 프랑스 중세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출처_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중세부터 혁명까지, 역사를 품은 보물창고

프랑스 국회도서관은 주로 국회에서 발간한 다양한 법령집과 서적,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제 당시 귀족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여러 귀중한 고서 및 수서본을 2,000여 권이나 보유하고 있다. 먼저 중세와 관련된 서적 중에서는 9세기에 집필된 《성서》와 13~14세기 중세 문학의 최고봉인 《장미 이야기(Roman de la Rose)》 수서본을 들 수 있다. 또 1431년 1월 9일에 개최된 잔다르크 재판 문서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잉글랜드가 장악한 노르망디 루앙의 재판부가 백년전쟁의 '영웅' 잔다르크를 이단, 마녀로 고발하고 화형을 선고한 재판 내용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5

4 도서관에는 루제 드 릴이 작사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의 가사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출처_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5 5개의 돔은 각각 '시학', '신학', '법학과 웅변', '철학과 역사', '과학'이라는 주제로 장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국회도서관은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에 막 등장한 15세기에 간행된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어 초기 인쇄술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거꾸로 인쇄가 널리 보급된 18세기에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손수 집필한 《고백록》 수서본은 물론, 현재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작사한 루제 드 릴이 1792년에 직접 쓴 가사 원본 또한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회도서관의 정수는 무엇보다도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문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국회의 탄생을 천명한 1789년 6월 20일의 《테니스 코트의 선서》, 그리고 이후에 간행된 2,000여 건에 이르는 혁명 관련 문서들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들라크루아가 남긴 5개의 돔 천장화

프랑스 국회도서관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19세기 초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5개의 돔 천장화다. 높은 위치와 오래된 구조로 색채가 퇴색하고 손상이 누적되었으나, 1년여의 보수 작업을 거쳐 돔 천장화는 웅장한 모습을 되찾았다. 시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돔에는 아킬레스와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오비디우스와 같은 고전 고대의 주제와 시인들이, 신학과 관련된 두 번째 돔에는 아담과 이브, 바빌론 유수, 세례자 요한의 죽음, 예수의 납세 일화가 그려져 있다. 세 번째는 법을 다루면서 스파르타의 전설적 입법가인 리쿠르고스, 로마 창건자로 알려진 누마 폼필리우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를, 네 번째는 천문학을 처음 정립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을 필두로 소크라테스와 헤로도토스, 세네카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을 다루는 마지막 돔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히포크라테스, 아르키메데스, 플리니우스 등 철학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양쪽 끝은 반구형 천장화로 각각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회화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신부터 인간, 자연에 이르는 인간 지식의 방대한 측면을 다섯 주제로 구분한 들라크루아의 생각을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홍용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공저로는 《교육과 정치로 본 프랑스사》, 《전쟁과 프랑스 사회의 변동》,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 등이 있다.

세 번째 장.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그림 같은 눈, 그리운 눈, 그리는 눈
어른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네 권의 동화

40
문장 너머의 세계
0과 1 사이에서 피어나는 온기
SF 소설가 전윤호

44
타인의 삶 읽기
빌 게이츠, 시대와 일상을 바꾼 혁신가
《소스 코드: 더 비기닝》

48
장면이 된 문장들
실직과 광기의 서사
《액스》를 품은 <어쩔수가 없다>



그림 같은 눈, 그리운 눈, 그리는 눈
어른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네 권의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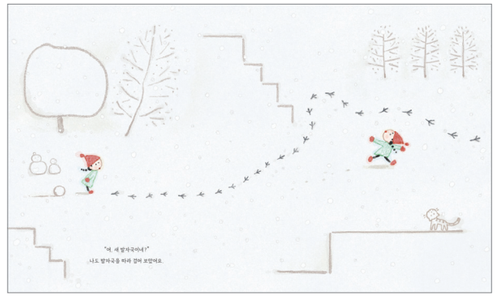
“꽃보다 더 흥미롭고 흠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녹지만 않는다면 가장 완벽한 것.”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에서 주인공 카이는 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눈 없는 겨울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다. 몇 해 전 함박눈이
펑펑 내린 날, 숲속 통나무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 쏟아지던 눈이 그치고 한밤중,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눈송이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포근한 세상이 펼쳐졌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문밖은 놀라울 만큼 환했다. 달빛을 받은 눈이 그 빛을 더 밝게 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산은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처음 밟는 눈은 아주 작은
무엇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처럼 부드럽고 평온했다. 등불 없이도 구석구석 찾아가 어둠을
밝히는, 축복 같은 눈 풍경이 등장하는 동화 네 권을 읽으면서 새해에 우리가 나눌 희망의
목록들을 생각해 본다.

글.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세상의 어지러움을 덮는 평화의 발자국

소복하게 쌓이는 함박눈은 세상의 모든 어지러움을 덮는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세계는 평등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포근함은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책을 펼치면 빨간 털모자를 쓴 아이가 나온다. 창밖의 눈송이들이 내려앉으면서 눈물처럼 살짝 번진다. 눈 풍경의 아름다움은 아이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전쟁의 현실과 평화를 향한 소망까지 연결된다. 주인공 어린이는 눈사람을 만들지만, 같이 놀 친구를 찾지 못한다. 그때 새의 발자국을 발견해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하늘을 훨훨 난다. 외톨이 어린이가 새들의 도움으로 먼 곳의 친구를 사귀고 신나게 훨훨 나는 장면은 벅찬 해방감을 준다.





《새처럼》
포푸라기 지음 | 창비 | 2025

이 책의 숨은 반전은 눈밭에 촘촘히 찍힌 새의 발자국들이다. 철조망 같기도 하고 '피스 마크'로 불리는 평화의 상징 같기도 하다. 영국의 반핵 평화 단체인 CND의 제럴드 홀톰이 디자인한 이 마크는 'Nuclear(핵)'의 N과 'Disarmament(감축)'의 D라는 깃발기호를 합한 것이다. 이 마크를 아는 어른 독자는 어린이들의 비행을 평화의 기도로 읽게 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화의 꿈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듯, 오색의 새 발자국이 세상을 누빈다. 혹한의 겨울, 전쟁으로 신음하는 어린이들에게 어서 평화가 찾아오길 새처럼, 흰 눈처럼 빌어본다.

차가운 눈 속에 담긴 가장 뜨거운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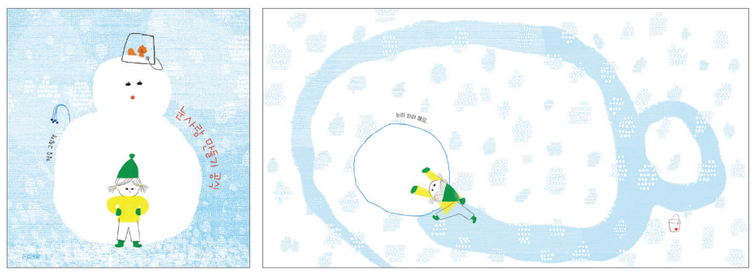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오승민 지음 |
다그림책(키다리) | 2024

눈은 기쁨일 때도 있지만 슬픔이나 아픔일 때도 있다. 오가는 길이 험한 산동네에 사는 이들에게 눈은 힘겹고 고단한 삶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이와 인형가게 유리 진열대에 놓인 작은 인형이다. 어린이는 첫눈 오는 날까지 손톱의 봉숭아물이 남아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아이의 소원은 인형 가게의 작은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손주를 홀로 돌보는 할머니는 인형을 사줄 여력이 없다. 오승민 작가는 어느 도시 외곽의 계단 많고 가파른 골목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현한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으면서도 내리지 않는 꾸무럭한 날씨와 인형을 갖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아이의 표정이 겹쳐지면서 독자의 감정도 함께 먹먹해진다. 어린이의 목소리와 인형의 목소리가 한 페이지에 나란히, 다른 색깔의 글자로 적혀 있어서 독자는 두 인물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책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첫눈 오는 날, 인형이 스스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도 어디선가 작은 소원을 빌며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많은 아이가 떠오른다. 그리고 인형의 결심에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들의 첫눈 소원은 공동체가 함께 지켜주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다.

무너져가는 계절의 순환에 던지는 질문



《눈사람 만들기 공식》
정승 지음 | 사계절 | 2025

이 그림책은 눈사람에서 출발한 작은 고민을 생태계의 대순환에 대한 사유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작품이다. 주인공 어린이는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주도면밀한 성격이거나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일지도 모르겠다. 눈송이들이 수학 기호들과 닮았다고 상상하면서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이 와야 해요."라는 짧은 인과 관계를 독자에게 확인시킨다. 그런데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연결고리가 실현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어린이에게 첫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어린이는 언제쯤 눈이 올까 기다리지만, 눈이 온다는 예보 뒤에 비가 내리고 실망이 쌓여간다.

겨울이 와야 눈이 내릴 텐데 지구 온난화로 가을만 길어진다.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야 겨울이라고 할 텐데,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려면 도토리를 100개는 모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도토리를 다 주워 가져가 버렸다. 눈사람 만들기는 점점 고난이도 과제가 된다. 이 어린이의 근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계의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다. 계절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소망도 무너지고, 생명의 터전도 무너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시대를 가로질러 이어지는 상상의 연대



《눈 내리는 삼일포》
이수지 지음 | 흰토끼프레스 |
2024

지금 사는 곳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아서 눈 내리는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눈이 곧 내릴 것 같다가, 몇 송이씩 내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내리다가, 마침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의 역사를 하나의 시점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그림책은 스스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지만 이 책은 움직이는 동사에 가깝다. 흰 눈이 그 움직임의 주체다.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눈의 단위를 헤아릴 때 왜 꽃을 부를 때처럼 '송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늘과 호수와 정자를 눈보라가 휘감는 장면은 마치 봄날 벚꽃 잔치처럼 찬란하다.

"육육봉 밖으로 푸르름이 아득한데, 호수 위에 송이송이 이리도 예쁜 눈이 나리누나."로 시작하는 이 책 속의 글귀는 작품의 모티프를 제공한 심사정의 그림 <삼일포>에 적힌 글이다. 한 권의 책이 지니는 힘은 눈송이들의 위력처럼 대단해서 이 그림책은 김연수 작가의 소설 《삼일포》로 서사적 인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소설 《삼일포》를 나란히 읽고, 오백 년을 거슬러 만난 세 예술가의 절묘한 인연을 짐작하는 일이 즐겁다.

김지은 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이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문예창작전공 교수.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바람 속 바람》으로 등단했다. 평론집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썼으며,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너와 나의 빨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과 1 사이에서 피어나는 온기

SF 소설가 전윤호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소설을 창작하는 시대. 누군가는 작가의 종말을 예견했고, 누군가는 창작의 혁명을 기대했다. 이 혼란한 과도기에 냉철한 '공학자의 눈'과 뜨거운 '소설가의 심장'을 동시에 지닌 인물을 만났다. 30여 년간 IT 현장 최전선을 누비다 SF 소설가로 변신한 전윤호 작가다. 엔지니어의 이성과 소설가의 상상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기만 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느린 호흡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과 문학의 경계에서 전윤호 작가를 만났다.

진행. 신병철 | 사진. 신성욱



Q. IT 최전선에 있던 엔지니어가 어떻게 SF 소설가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A.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해외에서는 과학자나 공학자가 SF 소설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영화 <마션>의 원작자 앤디 위어도 본업이 게임 개발자였죠. 코딩을 하다가 취미로 블로그에 연재한 소설이 대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공학자가 그렇듯, 어릴 때부터 SF 장르를 좋아했고 "로봇을 만들어야지.",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에 가야지."라는 꿈을 안고 공학자의 길로 들어섰죠. 그렇게 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30여 년을 달려오다 '퇴직 후에도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SF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SF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이 서더군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Q. 2023년 AI와 인간 작가가 협업해 쓴 SF 소설집 《매니페스토》에 참여해 단편 <오로라>를 발표하셨습니다. 실제 집필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A. 당시 ChatGPT가 막 등장해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글쓰기를 배우던 모임에서 알게 된 강사님이 "ChatGPT로 SF 소설을 한번 써보자"라고 제안하셨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AI로는 읽을 만한 수준의 글이 나오기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 참여했습니다. 예상대로 AI는 전체적인 스토리나 창의적인 플롯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롯은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장면 단위로 AI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텍스트를 생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전윤호 작가는 2023년 출간된 《매니페스토》를 통해 인공지능과의 협업이라는 실험적인 창작 방식을 선보였다.

Q. 당시와 현재의 AI를 비교했을 때, 창작 파트너로서 성능과 유용성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A. 그때나 지금이나 전문 정보를 학습하는 용도로는 훌륭합니다. 다만 참신한 스토리를 생성하는 능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석 및 평가 능력입니다. 최신 AI 모델들은 단편 소설 분량의 글을 평가하거나 플롯의 허점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날카로운 조언을 줍니다. 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독성 문제 등 개선할 부분을 피드백해주는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Q.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AI가 한 편의 완결된 소설을 혼자 창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소설 창작은 문장마다 독창성이 살아있어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이어지다가 결말에 이르러서 복선이 회수되며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현재의 거대언어모델(LLM) 방식으로는 거시적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바둑이나 코팅, 수학은 정답이 명확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승패라는 명확한 결과를 두고 수만 번 시뮬레이션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독자마다 평가가 제각각이고, 재미를 수치화해 AI에게 학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가 스스로 소설의 재미를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체 검증 과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Q. 타자기가 펜을 대체했듯 AI도 창작 도구가 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작가라는 직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저는 이미 AI를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다 벽에 부딪혔을 때 AI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답을 주진 않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또 의학 수술 장면처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문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AI를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최근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챗봇을 넘어선 일종의 '작가 전용 AI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초반부에 심어둔 복선이 후반부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분석하며 설정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죠.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AI가 버그를 잡아주듯, 소설가에게도 서사적 버그를 잡아주는 도구가 생긴다면 작가들은 설정 충돌 걱정을 덜고 훨씬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상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작가님의 작품들은 기술적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세계를 추구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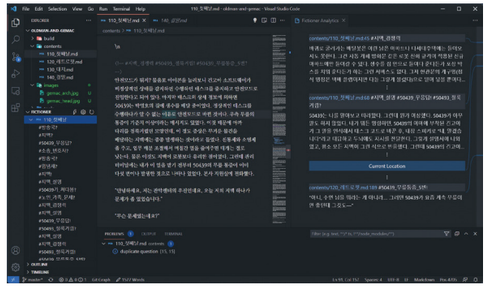
A. 적어도 전공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기술적 개연성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적 유희입니다. 추리 소설이 밀실 트릭을 두고 작가와 독자가 벌이는 두뇌 게임이듯, SF 소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션》을 읽으며 '저 상황에서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의문이 들 때 작가가 기발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하면 독자는 짜릿한 지적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SF 소설만의 매력과 지적 유희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Q. 엔지니어의 시각과 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는 다음 지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작품을 구상 중이신가요?

A. 3년 전부터 장편 소설을 하나 집필 중입니다. AI를 다루는 작품인데, 최근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수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던 기술들이 10년 안에 실현될 것처럼 보이니, 소설 속 설정이나 묘사도 현실에 맞춰 계속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작가

> "문학은 정보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 줄거리를 아는 것과 작품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문장 속에
> 들어가서 시간을 들이고 몰입해야만
>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개발자 도구 'Visual Studio Code'에 직접 만든 확장 기능 'Fictioner'를 적용해 단편 소설을 편집하는 모습. 전윤호 작가는 현재의 개발자 도구에 AI를 연동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삼고 있다.

협업용 AI 도구'를 직접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글을 대신 써주는 차원을 넘어,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창작을 실질적으로 돕는 진정한 의미의 '창작 도구'를 만들어보는 게 공학자로서 또 다른 목표입니다.

Q. AI가 책 한 권을 1초 만에 요약해 주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느린' 속도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단순한 지식 습득이 목적이라면 책의 형태는 바뀔 겁니다. 두꺼운 책 대신 모든 내용을 학습한 AI와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만 취하는 식으로 변화하겠죠. 하지만 문학은 정보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줄거리를 아는 것과 작품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문장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들이고 몰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경험이죠. 오히려 AI는 이 독서 경험을 풍성하게 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내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고, 마치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과 토론하듯 AI와 감상을 주고받으며 작품의 여운을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도서관 역시 책에 온전히 몰입하고 지적 체험을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윤호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AI와 로봇공학을 연구했다. SK플래닛 CTO, SK텔레콤 플랫폼 연구원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IT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다가 2019년부터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2020년 과학스토리텔러 1기 당선 작품집 《페트로글리프》에 SF 단편 〈노인과 지맥〉이 수록되었고, AI 협업 프로젝트 《매니페스토》에 참여해 단편 <오로라>를 발표했다. 장편소설로는 《모두 고양이를 봤다》, 《경계 너머로, 지맥(GEMAC)》이 있다.



《매니페스토》
네오픽션 | 2023
소설 창작을 AI와 함께 시도했다. 집필 과정과 고민, 그리고 완성된 이야기까지 가감 없이 담아낸 국내 최초의 '인간 대 인공지능' SF 소설집.



《멋진 실리콘 세계》
문학동네 | 2025
AI와 공존하는 근미래를 그린 전윤호 작가의 표제작 수록. 한·중·일 대표 작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채롭게 그려낸 SF 소설집.

빌 게이츠, 시대와 일상을 바꾼 혁신가

《소스 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부터 창업쯤까지의 삶을 담은 회고록《소스 코드: 더 비기닝》에 왜 주목해야 할까? "저는 20대 초반부터 대중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그 이전의 제 인생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어린 시절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자신이 이미 일찍부터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여러모로 나는 여전히 할머니 댁의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패를 돌리길 기다리는 여덟 살짜리 아이와 같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길 열망하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다."

글. **표정훈**(출판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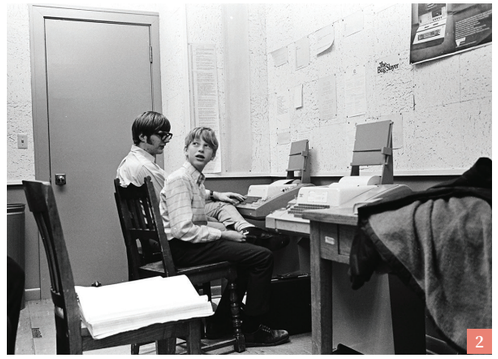
1 빌 게이츠와 그의 어머니 메리 맥스웰 게이츠.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를 세계적인 자선가의 길로 이끌었다. (출처_Museum of History & Industry, Seattle Post-Intelligencer Collection)

어머니에게 공적 가치를, 책에서 지식을 배우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큰 성공을 이루길 바랐는데, 여기서 성공이란 돈보다는 명성으로, 즉 지역 사회는 물론 더 넓은 범위의 시민 단체 및 비영리 단체를 돕는 역할로 정의되는 것이었다. … 자녀에 대해서는 학업과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사교적으로 활발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꿈꿨다. 이러한 비전으로 그녀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력도 쌓아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했다."

게이츠의 어머니는 자신과 가족들이 공적(公的) 가치에 충실한 지도적 위치의 시민이 되기를 바랐다. 많은 재산, 높은 지위는 좋은 것이기는 해도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공적 가치와 시민적 덕성(德性)의 중시는 게이츠의 은퇴 후 기부와 공익사업 추진으로 나타났다. 게이츠가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던 것은 유명하다.

"독서를 통해 나는 온갖 종류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한 가지 답을 찾으면 더 많은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뒷좌석에 앉으면 성경이나 여타의 책을 읽는 것이 나의 기본 상태였다(어디에서든 시간만 주어지면 그랬다).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2 1970년 레이크사이드 스쿨에서 빌 게이츠와 폴 앨런.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출처_Wikimedia Commons, Bruce Burgess)

3 독서광이었던 소년 빌 게이츠에게 책은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출처_빌 게이츠 공식 인스타그램)

4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설립된 앨버커키의 옛 사무실 터 기념판.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이라는 비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출처_historylink.org, Marcin Wichary)

5 빌 게이츠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질병 퇴치와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자선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큰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폴과 나의 희망처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저렴한 범용 컴퓨터가 탄생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1972년 가을에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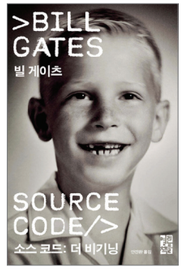
게이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게이츠는 불확실한 전망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실현해야 했다. 사람들의 평가는 신경 쓸 일이 못 되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망 자체를 만들어내는 선도자였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려워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선택한 그가 말한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격언은 진부하지만, 절대적으로 사실이다."

게이츠는 사립 중·고등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진학한 뒤 동급생과 함께 학교에서 전화선으로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는 시분할 시스템 단말기를 접하고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또한 레이크사이드 학우의 부모가 개업한 벤처 사업체를 통해 DEC사 컴퓨터에 무료 접속하는 혜택을 누렸다. 시스템 이상을 찾아 보고하는 테스터 임무 수행의 대가였다.

게이츠는 이와 같이 1960년대 어린이, 청소년이 누리기 힘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갔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회를 누린 사람들이 그 외에도 있었겠지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딱 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개선 능력이 곧 창의성,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여전히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크사이드 스쿨의 친구 중 한 명인 폴 앨런이 내 기숙사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획기적인 컴퓨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뜬 목소리로 알렸다. 나는 우리가 그 컴퓨터를 위한 BASIC 언어를 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에 그런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소스 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 지음,
안진환 옮김 | 열린책들 | 2025
어린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라는 미개척 분야의 잠재력을 직감하고 운명의 단짝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까지의 나날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 삶의 거의 모든 토대가 되어 준 관계, 교훈,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게이츠는 이미 존재하던 기술에서 반걸음 더 나아가거나 그 쓰임새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의 창의성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능력이었다. "레이크사이드의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점 변경이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즉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발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곧 그의 창의성이었다.

"내 성격과 경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독특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유한 미국에서, 그것도 백인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출생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운도 따랐다. … 열세 살이 되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칩들이 대형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까지 얻었다."

시대 환경이 인물을 만들지만, 남다른 재능과 노력으로 목표를 추구하면 그 인물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빌 게이츠의 재능과 노력은 행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게이츠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일찍 깨달았다고 회고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보다 게이츠의 삶을 잘 요약해 주는 것도 드물다.

표정훈 작가, 평론가.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국대학교 강사로 재직했다. 삼성출판박물관 전시기획자문위원이며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산업노동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실직과 광기의 서사

《액스》를 품은 <어쩔수가 없다>

어떤 분노는 개인의 내면에서만 맴돌고, 어떤 분노는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액스》는 바로 후자의 분노를 이야기한다.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며 겪는 심리적 붕괴와 극단적 선택의 서사는 1997년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대량 해고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니다. 일인칭 시점으로 펼쳐지는 버크 레보레의 내면 묘사는 독자에게 실직과 좌절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동시에 아이러니와 사회적 비판의 결을 전달한다. 이번 칼럼에서는《액스》가 담아낸 미국 사회와 인간 심리의 풍경, 그리고 그 소설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 하성태(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 **사진. CJ ENM**



장르를 건너온 꿈

박찬욱 감독이 최근 미국 유명 방송 토크쇼에 연이어 출연했다. <어쩔수가없다>가 미국에서 개봉하고 골든 글로브 시상식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베니스국제영화제를 달궜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아카데미 상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특유의 입담으로 원작《액스》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만들고 싶었지만, 미국 영화사들이 받아주질 않았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다면 미국 장르 소설의 대가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액스》는 어떤 소설이었길래 미국인들이 사랑했던 <올드보이>의 거장을 장기간 품고 있었던 걸까.





도끼가 가리킨 사회의 그늘

《액스》는 간결하다. 그러면서 거침이 없다. 시작부터 살인장면이 펼쳐진다. 일인칭화법을 통해 내면 묘사에 충실한 한편, 1997년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 실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당시 미국 사회상과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배경을 부족함 없이 다룬다. 실직자의 고통이 피부로 다가온다. 사실상 소설은 외피를 쓴 세태 보고서에 가깝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어이없는 아이러니의 연속이 어느 순간 공감으로 바뀌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액스》속 가장 버크 레보레가 동종 업계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연쇄살인범'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23년간 성실히 제지업계에 몸담았건만,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겨우 중산층의 삶에 적응해 가던 시기였다. 대학에 간 아이와 앞으로 대학에 갈 아이 둘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직 상태가 2년째로 접어들자, 서로 사랑해 마지않았던 아내조차 "이혼이나 과부가 되는 것보다 (남편의 실직이) 훨씬 더 끔찍하다. 딴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털어놓았다. '인생의 절정에 다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폐기 처분시키는' 경영진과 임원, 주주들의 야만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버크가 보기에 그들은 밀레니엄이라는 '대변동'을 앞두고 미쳐 버린 것 같았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 같이 미쳐 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버크는 유령회사 주소를 업계지 광고에 실은 뒤, 동종 업계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받기 시작했다. 면접을 핑계로 그들을 관찰했고, 때로는 마주친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들은 적이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 7명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래야 원하는 회사의 관리직으로 뽑힐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권총이라는 유산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했다. 버크는 점점 대담해지며 살인의 이유와 자기변명을 창조해내기 시작했다. 이 모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액스》는 그렇게 미국 사회가 자행한 대량 해고가 평범한 중산층 가족에게 미치는 극단적이면서 사실적인 영향을, 그 가장을 미쳐가게 만드는 과정을 우울하지만 실감 나게 묘사한다.



책
《액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지음, 최필원 옮김 | 오픈하우스 | 1997
'도끼(The AX)'라는 제목처럼 정리해고와 기업의 탐욕을 은유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해고로 삶이 무너진 한 중산층 남자가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가 낳은 슬픈 비극을 그려낸다.



박찬욱식 변주

이제 박찬욱 감독 차례다. 한국에서 실직을 '모가지'라 표현하듯 미국에선 '도끼질(액스, AX)'이라 한다. 참고로 '모가지'는 <어쩔수가없다>의 원제였다. 실직 상태에서 연쇄 살인에 나서는 중산층 가장의 광기 어린 액션과 심리적 변화,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하며 30여 년 전이나 다를 것 없는 '과도적 기술' 앞에 선 전 세계적 현실은 '배운 변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감독의 흥미와 취향을 오랜 기간 잠식해 왔다.

이 영화는 박찬욱식 아이러니와 코미디로 가득 차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서사가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원작의 현실적인 소재를 끌어올려 감독 특유의 양식적이고 구조적인 미학과 잘 짜인 서사를 충돌시킨 근사한 수작이다. 실직자와 지혜로운 아내를 연기한 이병헌과 손예진 못지않게, 피해자 부부를 연기한 이성민과 염혜란의 연기는 실로 절창이다. 조용필의 명곡 <고추잠자리>가 울려 퍼지며 벌어지는 살인 장면 또한 그런 아이러니가 절정을 이루는 명장면이다. 다만 근원적이고 신화적인 소재를 품은 채로 리얼리즘과의 줄타기를 잃지 않으며 주제의식을 펼쳐온 박찬욱 감독의 기존 작품과 비교하자면, 실직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한 설정이 관객에게 다소 이물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건 감독조차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영화
<어쩔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 | CJ ENM | 2025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겪으며,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과 드라마틱한 전개, 아름다운 미장센, 견고한 연출, 그리고 블랙 코미디 요소가 더해진 작품이다.

시공간을 건너는 현실

《액스》를 읽고 <어쩔수가없다>를 보는 일은 확실히 즐거운 경험이다. 각기 다른 예술 장르를 경유해 미국과 한국, 1997년과 2025년이란 시공간의 차이와 공통의 현실을 고민하고 상상하게 만든다. 원작자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예언도 무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자동화가 AI로 대체된 '끊임없는 대변동'과 '과도기적 기술'은 작금의 우리 모두와 전 세계인이 맞이한 불안과 공포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성태 영화 및 대중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무비스트》, 《FILM2.0》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브런치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사, 방송, 영화에 대한 비평을 연재하고 있다.

네 번째 장.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5
국내 도서관 소식

58
국외 도서관 소식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2025 온라인 자료 협력 유공 포상 1

국립중앙도서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연말 업무 유공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온라인 자료 확충과 국민의 지식정보 활용 증진에 공헌한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자료 납본, 온라인 자료 수집, 지역자료 납본 부문에서 각 1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온라인 자료 납본 부문에서는 ㈜학지사가 1,200건 이상의 온라인 자료를 납본하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납본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온라인 자료 수집 부문에서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수상작 380여 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해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광고 영상자료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자료 납본 부문에서는 경남대표도서관이 지역자료수집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립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 간 지역·향토자료의 수집·보존·활용 협력에 기여했다.

문의 온라인자료과(02-590-6300)



온라인 자료 우수 협력기관 표창 수여 사진

안동김씨대종회 고문헌 603책 기증 2

국립중앙도서관은 안동김씨대종회(회장 김석한)로부터 고문헌 603책을 기증받아 '안동김씨 문고'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1시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안동김씨 문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안동김씨족보》와 선조의 문집인 《우암선생유집》 등 안동김씨 관련 희귀 고문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어제갱진첩》은 1770년 영조가 지은 시와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 및 여러 신하가 화답한 시를 모아 엮은 책으로, 임금과 신하의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개명첩》은 1631년 김계(金繼)가 역적 권계(權繼)와 이름이 같아 김계(金系)로 개명하게 된 사실을 임금의 명령을 관장하던 예문관에서 증빙해 발급한 문서로,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허락 없이는 개명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희귀 고문서이다. 안동김씨대종회는 2021년부터 종인들이 소장한 고문헌을 수집하기 시작해 18명으로부터 600여 책을 수집했다. 이후 2025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안동김씨 문고'가 조성되었다. '안동김씨 문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고문헌과(02-590-0574)



안동김씨 문고 기증식 사진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에 '한국자료실' 개관 3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 정오(현지 시각)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에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WOK)'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자료실은 스페인 내 두 번째로, 2011년 말라가대학교 이후 14년 만에 조성되었다.

1218년에 설립된 살라망카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 중 하나로, 인문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학과를 정식 개설하고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학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실 설치비 1만 5,000달러와 한국 관련 도서·자료 1,461권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된 한국자료실에는 한국문학, 역사,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한국학 교육과 연구는 물론, 현지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 한국자료실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살라망카대학교 한국자료실 개관으로 글로벌 한국학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02-590-6320)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한국자료실 개관식 장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와 ISNI-KOREA 업무협약 4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음악창작자의 국제적 식별 강화와 창작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와 지난해 12월 29일 ISNI-KOREA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컨소시엄 16번째 기관으로 참여하며,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과 함께 음악 분야 저작권 정보를 ISNI 데이터와 연계하게 된다.

ISNI(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창작 활동과 관련된 개인·단체의 공적 신원에 부여되는 16자리 국제표준번호로, 동명이인이나 이명동인을 식별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ISNI는 주요 도서관과 출판 분야뿐 아니라 글로벌 음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ISRC, UCI 등 다양한 창작물 식별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ISNI와 연계를 통해 표준식별체계 정보 공유와 통합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이 강화되고 저작권 관리와 창작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ISNI-KOREA 서비스 누리집(https://www.nl.go.kr/isni)을 통해 ISNI 발급 정보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국가서지과(02-590-6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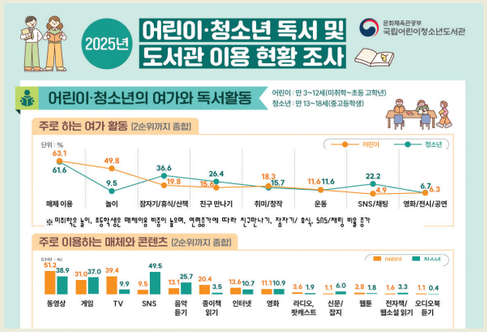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누리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5년 어린이·청소년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발표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 어린이(만 3~12세)와 청소년(만 13~18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어린이·청소년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63.1%)와 청소년(61.6%) 모두 여가 활동에서 디지털 매체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동영상, SNS, 게임뿐 아니라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 등 디지털 읽기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독서가 활발해 전자책과 웹소설, 오디오북 등이 주요 독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종이책 독서량은 감소하고 연령별 독서 흥미 격차가 심화되었다. 책을 구하는 경로는 공공도서관(41.1%), 구입(36.8%), 학교·유치원(13.5%) 순이며, 종이책 독서율은 여전히 83%로 가장 높지만, 만 5~10세 어린이의 월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11.3권으로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 52.1%, 청소년 45.4%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도서관 연간 이용률은 82.1%로 높았지만, 프로그램 참여율은 낮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02-3413-4750)



어린이·청소년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주요 결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26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독서 문화의 장을 연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상상을 지원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단순한 책 읽기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창작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창의적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네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한다. 첫째,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미래형 독서정책을 설계하고, 현장 사서들의 AI와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워크숍을 확대해 기술과 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아이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책 속 이야기와 상호작용하며 직접 결말을 만들어가는 창의적 독서 프로그램과 가상현실 토론, 메타버스 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독서 경험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독서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해 소년보호기관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지식 콘텐츠가 안전하게 전 세계로 전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큰잔치와 국제 심포지엄,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기반 시설 개선과 친환경 도서관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02-3413-4750)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 1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25년 9월 시행)*에 따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 누리집(www.nld.go.kr)에서 14만여 건의 대체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제공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만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보호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수교육교원, 기타 지원 인력까지도 접근을 확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대체자료 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시 해당하는 장애회원으로부터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체자료 이용 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 누리집(www.nld.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4조제2항제4호-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책 읽는 즐거움' 전하는 읽기쉬운책 80종 제작 배포 2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 등을 위해 기존의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읽기쉬운책' 제작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80종의 책을 제작해 광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학교 등 660개 기관에 2만 7,000여 권을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책에는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2019, 창비), 이정모 작가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2018, 바틀비) 등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문학, 건강, 여행 등 친숙한 주제뿐 아니라 과학, 경제 등 대중 교양서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육아, 생활, 요리 관련 책들도 선정했다. 예를 들어 《너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어서》(2023, 책과이음), 《진짜 기본 청소책》(2024, 레시피팩토리), 《제철 채소로 차린 사계절 식탁》(2024, 리틀프레스) 등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 포함되었다.

'읽기쉬운책' 제작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의 독서를 돕는 취지에 공감한 저자의 저작권 동의와 출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장 길이, 어휘 수준, 문단 구성 등을 1차 변형한 뒤 편집자가 교정하고, 전문가·발달장애인 이용자 그리고 원저자의 다단계 검토를 거쳐 문장과 내용 전달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정했다. 작업에 참여해 검토를 담당한 한 발달장애인 이용자는 단어, 문장 구조 등이 기존 책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읽기 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년 40종 제작, 4,000권 배포 → 2025년 80종 제작, 약 2만 7,000권 배포

서울야외도서관, 시민이 뽑은 ‘2025년을 빛낸 최고의 서울시 정책’ 3

2025년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은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에서 진행되었으며, 내·외국인 총 22만 6,062명(65만 8,175표)이 참여했다.

1위에 오른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약 800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일상문화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독서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서울광장(책읽는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투표자 중 외국인은 1만 1,337명으로 총 3만 3,285표를 투표했으며, 외국인이 뽑은 최고의 정책 1위 역시 서울야외도서관이었다.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또는 ‘서울시 10대 뉴스’를 검색하거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내·외국인 합산)

순위	정책명	득표수	득표율(%)
1	서울야외도서관	112,762	17.1
2	기후동행카드	110,927	16.9
3	손목닥터9988+ 서울체력9988	89,845	13.7
4	한강 드론 라이트 쇼	86,539	13.1
5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4,561	9.8
6	미리내집	41,341	6.3
7	신속통합기획 시즌2	40,694	6.2
8	서울 규제혁신 365프로젝트	40,470	6.1
9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	35,592	5.4
10	쪽방촌 새 보금자리, 해든집	35,420	5.4

대전시 한밭도서관, ‘2025 공공도서관 세미나’ 개최 4

한밭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2시 한밭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지역 공공세미나는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과 사회·문화적 요구 속에서 공공도서관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사서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29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미나는 2개 강연과 1개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이용훈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회장은 ‘인공지능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을 조망했다. 서경숙 사례 관리 슈퍼바이저는 ‘스스로 나를 성장 시키는 힘’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에 대응하는 자기 이해 및 심리 회복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한밭도서관 박윤서 사서가 ‘대전형 도서관 특화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실행 프로그램 모델 개발’ 사례 발표로 고령층 디지털 교육 사업의 연구성과와 실행모델을 소개했다.



한밭도서관 ‘2025 공공도서관 세미나’ 홍보물

고창황윤석도서관, 2025년 12월 3일 개관 5

전북 고창군의 ‘고창황윤석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개관했다. 고창군은 개관식을 통해 도서관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 도서관은 월곡지구에 총면적 3,81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휴게공간,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황윤석 전시공간, 책마루, 무인북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개관을 기념해 팝업북 특별 전시와 스탬프 투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도서관 설계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도서관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도서관과 도서관 건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며 공간에 깊이를 더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강원국 작가, 20일에는 미우 작가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도서자동화시스템을 통한 대출·반납 서비스, 디지털 명화 갤러리, 자료 검색시스템, AI 로봇 등 최신 스마트 ICT 장비를 도입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의 내부 이미지

경산시립중산도서관, 2025년 12월 26일 개관 6

경산시 펜타힐즈4로 5에 위치한 ‘경산시립중산도서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산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공공도서관이다.

총면적 3,31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도서관 체계와 쾌적하고 풍성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에 전시 공간과 상상놀이터, 영유아·어린이 자료실, 영어 자료실이 있으며, 2층에는 일반자료실과 스터디룸, 소회의실 등 ‘책과의 만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층에는 실감 체험실, ICT 체험실, 음악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 문화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스마트 열람 시스템, 디지털 자료 제공은 물론 전자신문, 실감형 체험 독서 활동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6년 1월 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매주 금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경산시립중산도서관 개관 포스터

국외 도서관 소식

IFLA

도서관 협회의 AI 대응 동향과 사서직 패러다임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도서관협회관리분과(Management of Library Associations, MLAS) 의장 로이다 가르시아-페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도서관 협회들이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오면서 사서직의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를 분석한 보고서 <사서직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도서관 협회의 AI 관련 활동 검토>를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사서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실무, 교육과 연수, 정책 수립, 국제적 옹호 활동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주요 도서관 단체인 미국도서관협회(ALA), IFLA,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 유럽국립도서관관장회의(CENL), 미국대학및연구도서관협회(ACRL) 등은 역량 기준 마련,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국제 협력, UN 의제 연계 등을 통해 도서관 현장이 AI를 책임감 있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보고서에서는 2019~2025년 주요 이정표를 통해 도서관 분야에서 'AI 활용 준비도'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도서관 협회가 집중해야 할 전략 과제로 AI 문해력, 글로벌 협력, 유연한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

AI 대응 방향 제시하는 입장문 발표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은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생성, 공유, 해석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억기관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6일 밝혔다. LAC는 AI가 소장 자료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캐나다의 역사, 문화, 시민 생활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전환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LAC는 AI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LAC는 캐나다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호기심, 신중함, 확신을 가지고 AI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신뢰, 포용, 공익이라는 직업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LAC는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의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LAC의 이번 입장문은 책임 있는 혁신을 도모하면서 공공 신뢰를 지탱하는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의 목표를 반영한다. 네 가지 핵심 원칙과 세 가지 전략적 축을 기반으로, LAC는 LAC의 가치와 사명에 부합하는 AI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기반과 조직 역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략 발표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출처_NLS)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LS) 관장 아미나 샤는 NLS의 향후 2030년까지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 '다음 챕터(The Next Chapter)'를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공공 부문, 도서관계, 문화 및 관광 부문 등 주요 파트너와 이해관계자, NLS 전 부서 직원들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새 전략은 이전 전략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전 전략 기간 동안 NLS 조지 4세 브리지 본관의 방문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도서관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NLS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요소로 책임 있는 관리, 연결,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중점 분야에는 청소년 및 젊은 세대와의 협력 확대, 지속가능성 분야 성과 강화,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NLS 존재감 확대, 조지 4세 브리지 본관 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1. 읽으면 보이는 퀴즈



<오늘의 도서관>을 즐겁게 읽으셨나요?

소식지를 꼼꼼히 읽은 후, 이번 호에 등장한 도서 **5권**을 찾아보세요.
당첨된 두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소식지 **11**쪽, **12**쪽, **23**쪽, **41**쪽, **42**쪽을 살펴보세요.

①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
②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 아멜리 노통브
③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④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⑤ 《회복탄력성의 뇌과학》, 아디티 네루카
⑥ 《매니페스토》, 전윤호 외 7인
⑦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
⑧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송길영
⑨ 《쥬디 할머니》, 박완서
⑩ 《소스 코드: 더 비기닝》, 빌 게이츠

❶ 퀴즈 풀기



2. 이달의 최애 문장

❷ 응모하기

이번 달 독서 중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나요?

책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만의 **최애 문장**을 적고,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한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해당 원고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참여 기간 2026년 2월 20일 금요일까지 **당첨자 발표**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연락